

# “금품 상납 없애자” 공직사회 자정 바람 분다

### 김영란법 1년...광주·전남 일부 지자체 노조 중심 추진

### 부서장 상납 관행 “적폐 청산” vs “문제없다” 논란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추석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에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상납 문화가 사라져 가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직원 출장비 등을 모아 각 부서경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부서장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돈을 상납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에 대해 하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적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에선 ‘부서 경비’를 모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급자가 인사권 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일부 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금품 상납 문화를 없애자는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추석 명절 관련 부서장에 대한 금품 상납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부서장에게 제시했다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회의를 열고 기존 200만원 수준의 절반인 100만원을 상납했지만, 이후에도 내용이 일고 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각 부서별로 금액

에 차이는 있지만, 사업 관련 부서의 경우 수백원씩을 1년 3차례씩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부서장에게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명절이면 관행적으로 상급자는 직원들에게 과일 등을 선물하고, 직원들은 1명당 1~2만원씩 각축해 상급자에게 전달했지만 최근 바뀐 분위기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서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출장비(일수·인원) 부풀리기’ 등 각종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장비를 부서 운영비로 사용한다에 대한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출장비를 모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덕분에 부서 관련 회식 등에서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편리한 부분이 많다”면서 “명절이나 휴가 때 부서장에게 주는 돈도, 결국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서를 대표해 외부 활동 비용 및 직원 격려용 등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출장비를 급여와 함께 개인별로 지급하고, 단체적인 부

서 경비의 발생 요인이 있으면 그때 개인별로 모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일부 부서장의 경우 모아놓은 출장비를 주머니 삼짚돈 마냥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의 암묵적 동의속에 출장일수 및 인원을 부풀리는 등 불·편법적 행정 행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례적이고 조직 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출장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MBC 사장 사퇴하라” 2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 ‘여수MBC 심원택 사장, 전두환 미화, 5월평화 발언 증언 기자회견’에서 여수 MBC 소속 구성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심원택 사장의 발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광주 5월단체들은 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법무부, 5·18재단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 제동 5월단체 면담한 법무장관 “공문 보완해 달라” 여지 남겨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5·18민중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광주일보 9월21일 6면)에 제동이 걸렸다.

5·18재단은 “27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협조요청에 대해 허가를 보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제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시신 암매장 약도와 당시 수감자 증언을 토대로 교도소 안팎에 대한 발굴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소유한 법무부에 지난 20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회신 공문에서 “국회에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심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

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18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8일 국회의 방문, 박 장관과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암매장 발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암매장지 발굴조사 협조 공문 발송자 명의로 5·18재단 외에 5월 단체들을 추가해 다시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당장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여·야 대표 면담 내용을 토대로 발굴 조사 방향을 다시 세울 방침”이라며 “나머지 두 곳(동구 너릿재 인근·제2수원지 일대)은 지자체와 협의해 계속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검찰 “헬기사격 조종사 관련 증언 확보”

### 당시 조종사들 진술 거부·국방부 비협조 등 향후 수사 난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조종사들의 진술 거부와 국방부의 자료 미제출로 향후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995년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살피더니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며 “목적자 10여명의 증언과 함께 광주로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1명의 진술도 최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엔 조사한 조종사는 헬기 사격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31항공단 소속 506항공대의 출동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조종사들의 진술

거부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향후 수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나머지 조종사들을 접촉했지만 진술을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사전에 요청했던 헬기 출격일지 등 각종 자료들은 국방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방부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 군 검찰에 최근 수사를 촉탁(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5 해질 18:20  
달출몰 14:15 달지름 --:--

#### 쾌청한 가을

아침기온이 어제보다 5~6도 낮아 쌀쌀하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3	보성	맑음	10/21
목포	맑음	14/22	순천	맑음	13/23
여수	맑음	14/22	영광	맑음	12/22
나주	맑음	10/23	진도	맑음	12/22
완도	맑음	14/22	진주	맑음	11/21
구례	맑음	10/22	군산	맑음	11/21
강진	맑음	11/23	남원	맑음	9/21
해남	맑음	10/23	속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10/21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1.5	북동~동	0.5~1.0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동~동	1.0~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동~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21	07:39
여수	12:57	20:41
	08:38	02:32
	23:27	16:41

#### ◇주간 날씨

30(토)	10(일)	2(월)	3(화)	4(수)	5(목)	6(금)
14/27	16/24	18/23	18/25	14/24	13/24	13/24



####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파부질현

## “총인시설 비리 대립산업, 광주시에 68억원 배상하라”

### 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입찰비리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 시설)을 낙찰받은 업체가 자치단체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대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답함으로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시가 손해를 봤다며 6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립산업 등 4개 업체는 2011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기소

### 1억5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64) 보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공급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A(45)씨와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B(52)씨 등 2명도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 등을 체포하고 군청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13일 이 군수를 구속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명절 처지 비관 노숙인, 가게 유리창 부수고 “교도소 보내달라”

### 성다발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보내달라”

○20여년 광주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정씨는 “차라리 교도소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정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한 뒤 노숙자 쉼터로 신병을 인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전기제품 등을 파손한 혐의.

○20여년 광주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정씨는 “차라리 교도소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정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한 뒤 노숙자 쉼터로 신병을 인계.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jepa.kr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안내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자금지원 T.061-288-3831~2

-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자 및 저리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유동구조 개선자금 등



### 판로 및 수출지원 T.061-288-3840~2

-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유망상품 판촉전, 수출 초보기업 중국진출 지원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통상 타력제 운영
-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지원, 농수산식품 해외판촉행사 등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T.061-288-3850~1, 3834

- 맞춤형 경영자문 컨설팅과 경영혁신 교육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현장기동단」, 경영자문 상담회,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교육 등



### 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 일자리 종합센터 T.080-500-1919
- FTA 활용지원센터 T.061-288-3870~2
- 비정규직노동센터 T.061-288-3860~2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T.061-288-3891~6, 282-9588